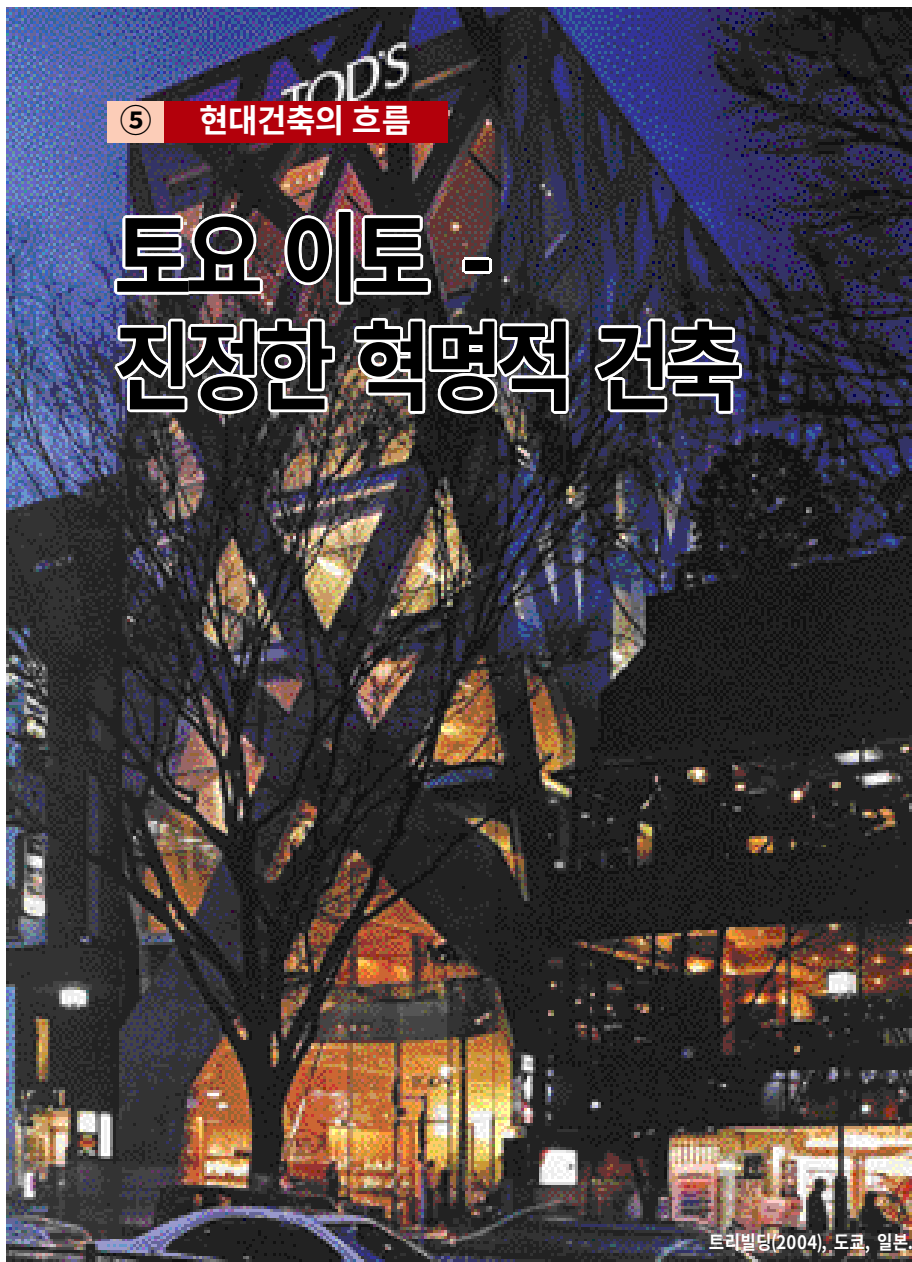


토요 이토 - 진정한 혁명적 건축



트리빌딩(2004), 도쿄, 일본.

똑똑한 건축가

현재 일본 건축계의 양대 산맥이라 한다면 아마도 ‘다다오안도 와’ 토요이토 (Toyo Ito, 1941)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둘은 다른 건축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그만큼이나 다른 성장배경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안도는 정식 건축교육을 받지 않은 자수성가형 건축가인 반면, 토요이토는 동경대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건축가이다. 동경대 출신이라는 선입견 없이 보더라도 필자가 바라본 현대 건축가들의 작품 중에서 가장 진보적이면서도

스마트한 건축을 하는 사람은 ‘프랭크 게리 도아니고’ 램쿨라스 도아닌 토요이토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토요이토는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윈드타워

토요이토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작품을 꼽는다면 단연 ‘윈드타워(Tower of Winds, Yokohama, 1986)’를 꼽을 수 있다. 21m 높이의 이 타워는 요코하마의 버스 정류장 옆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쇼핑센터의 통풍과 물탱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존의 타워를 리모델링한 것이다.

이 타워의 입면은 타공 철판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재료가 이 타워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타공 철판은 철판에 구멍이 뚫려 있는 재료로서 가정집에 있는 모기장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작은 구멍 때문에 이 재료는 어두운 쪽에서는 밝은 쪽이 보이고 밝은 쪽에서 보면 은색의 불투명한 재료처럼 보이게 되어 있다. 따라서 타워 주변을 걷는 보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낮 시간 동안 이 타워는 타원형 실린더 형태의 은색 구조물로 보인다.

그러나 밤이 되면 타공 철판으로 만들어진 표면 안쪽에 설치된 조명 기구가 빛을 내기 시작하면서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구조물이 된다. 이때 조명 기구들은 타워 주변에 부는 바람의 방향이나 세기에 따라서 각각 다른 빛을 연출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라는 자연을 테크놀러지의 힘을 빌어서 형형색색 다른 시각적인 정보로 변환시켜서 보여주는 장치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이는 건축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타공 철판이라는 재료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여기에 현대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물질성을 가진 다기보다는 빛의 연출에 의해서 존재 자체가 있었다, 없어졌다 바뀌는 하나의 정보가 되어 현실과 비현실, 혹은 실제(physicality) 허구(cyber) 사이를 넘나드는 건축이 만들어진 것이다.

고딕성당-미디어-윈드타워

과거 건축은 커뮤니케이션을 극대화하는 장치로 이용되어 왔다. 대표적인 것이 고딕성당이다. 고딕성당은 플라잉버트레스라는 특이한 구조를 이용하여 벽으로부터 구조적인 기능을 외부로 빼어내고, 그

로 인해서 큰 창문을 얻을 수 있게 하였다. 이 창문에는 스테인드글라스를 이용해서 성경속의 이야기들을 설명해주는 이미지가 들어갔게 된다.

당시 성경책은 일일이 손으로 써서 만들 수밖에 없는 필사본만 있었기에 주요 성직자를 제외하고는 성경을 접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글자를 읽지 못하는 일반 서민들은 주일 예배에 와서 성직자가 낭랑한 목소리로 예코가 있는 성당에서 낭독하는 말씀만이 유일하게 신의 뜻을 접할 수 있는 길이었으며, 스테인드글라스는 그러한 이벤트에서 비주일을 담당했던 부분이다.

예배당에 들어간 신자는 복도를 걷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순차적으로 스테인드글라스 이미지를 바라보게 되고, 이를 통해서 마치 영화처럼 성경속의 세계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고딕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는 인류 최초의 극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구텐 베르그’에 의해서 금속 활자가 발명되고, 책이 보편화되었으며, 건축에서 조각과 그림으로 구성되었던 미디어적 요소는 모두 빠져나가게 되어 지금은 TV와

컴퓨터 모니터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건축과 미디어가 분리되어 있던 것을 다시금 빛의 현상을 이용해 건축에도 도입한 사람이 토요 이토이다.

백남준 비디오 아트와 윈드타워

토요 이토는 이 ‘윈드타워’ 이외에도 같은 재료로 달걀 모양의 ‘에그(Egg of Winds, Tokyo, 1991)’도 만들었는데 이 작품에서 이토는 밤에 프로젝터로 영화 이미지를 투영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통적인 건축재료보다는 이미지가 건축의 물질을 대체하면서 솔리드한 건축성이 사라지는 현상을 만들게 되었다. 이러한 시각 정보 혹은 이미지가 전통적인 솔리드 매스를 대체하는 작업의 효시는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일 것이다.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가 전통 조각품에서 솔리드한 매스보다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이미지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예술을 하였다면, 이토는 타공 철판이라는 건축 재료를 잘 이용해서 낮에는 솔리드한 매스적인 가치를 가지고, 어두운 밤에는 매스 대신 이미지로 인한 정보만 이남는 새로운 건축작업을 하였다. 토요

이토의 이러한 작업은 훗날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입면 같은 여러 아류를 낳기도 하였는데, 건축이 본질적인 가치에서 떠나 지나치게 테크놀러지에 의존하는 폐단을 낳기도 하였다.

혁신적인 구조

많은 사람들이 이토를 따라서 이미지 건축을 추구할 때는 이미 다음 관심사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가 미디어 건축 이후에 추구한 것은 혁신적인 구조를 이용한 이미지이다. 대표적인 작품은 ‘센다이 미디어 테크(Sendai Mediatheque, Sendai, Japan, 1995 2000)’이다. 이 작품에서는 전통적인 기둥이 없는 건물을 디자인하였다. 르 코르뷔제의 도미노 구조를 보면 콘크리트 슬래브와 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이 작품에는 기둥을 마치 망사 스타킹 같은 모양으로 철을 망모양으로 만들어 실제로 기둥의 가운데를 비워놓고 그 안을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코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로써 서로 다른 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구멍을 통해서 서로 바라볼 수 있는 현

윈드타워(1986), 요코하마,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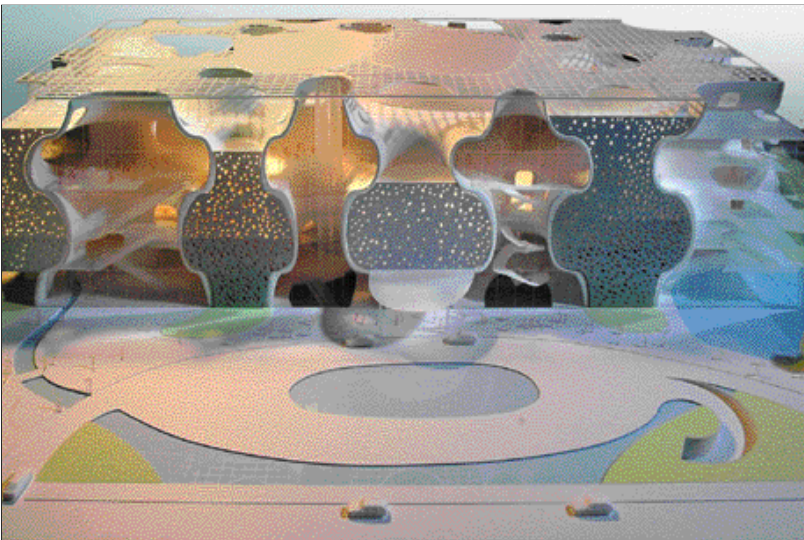


⑤ 현대건축의 흐름

상이 생겨나는데, 이는 마치 평행 우주(parallel universe)를 관통하는 웜 홀(worm hole)을연상케한다. 실제로구조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이 작업을 위해서 치열한 구조 계산과 정확한 시공이 있었음은말할필요도없다. 이렇게생긴기둥갈지않은기둥은13개가있는데, 이중4개는내진의구조적역할을담당하고9개는 건물 자체 무게를 감당하고 있다. 이 튜브같은기둥과슬라브에는총6,00톤의 철이 소요되었고, 용접하는 데만 1년 반의시간이소요되었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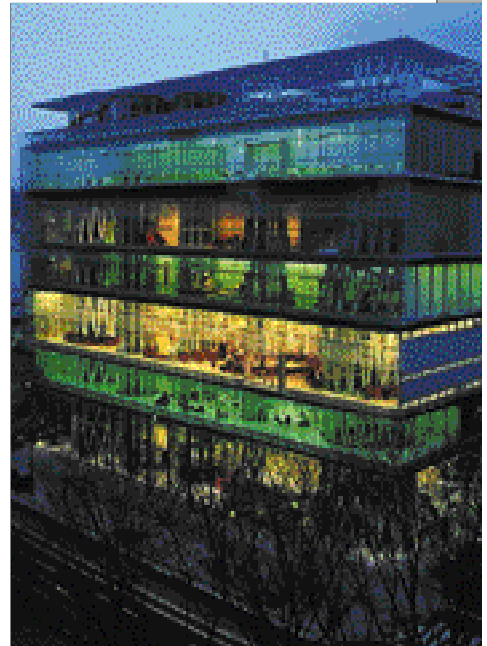
이후에 이토는 팬더의 패턴처럼 동그란타원들이입면에나타나 ‘팬더파빌리온’이라불리기도하며, 물에비친모습이 하트모양이라해서 ‘하트파빌리온’이라 는애칭을가진 ‘부루기파빌리온(Brugge Pavilion, Belgium, 2002)을 만들었다. 이 작품은 벌집 모양의 6각형 모양의 알루미늄 모듈을연속적으로용접한후, 그 위에 타원형의 철판을 대어서 구조적인 힘을 받게한 다리 형태의 파빌리온이다. 실제전통적인구조계산법을이용해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불규칙적인 패턴이다.

대만오페라하우스(2005), 타이청, 대만.



하지만 그는 모델을 이용해서 구조적인 원리를 테스트해본 후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진행시켜나갔다. 실제로용접을 하는 기술자들은셀 수없이 많은6각형 모듈을 용접하는 것을 포기하였고, 결국에는 한 명만이 남아서 모든 작업을 마쳤다고한다.

나뭇가지 모양으로 벽이 디자인되어 있다고 해서 ‘트리 빌딩(Tree Building, Tokyo, 2004) 이라는 이름을 가진 빌딩의구조역시새롭다. 이작품은나뭇가지의 모양처럼 콘크리트 벽체가 구조 역할을 하면서 내부에는 아무런 기둥이 없는 빌딩이다. 한국에서도 이 빌딩은 인기가 많아 여러 빌딩과 모델하우스 등이 따라 하기는하였으나, 예산과구조 기술이 따라오지못해서내부의기둥까지없애지는 못한 결모양만흉내낸것으로그친아쉬운작품들도많았다. 최근국제현상설계 당선작인 ‘대만 오페라하우스(Taiwan Opera House, Taichung City, Taiwan, 2005) 는이러한예측불가능한혁신적인구조의구치를보여준다. 이작품은산호초의3차원적인구조를흉내내어서바닥, 벽, 천장의구분이 없이 모두 연결되



센다이미디어테크(1995-2000), 센다이, 일본.

어 있는 3차원 커브의 벽면을 만들어서 내외부의 경계가 모호한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공간을창조해냈다. 이러한 곡면은 음향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훌륭한반사판역할을수행하여오페라하우스로는이상적인계획안이라여겨진다.

친환경적 설계

전 세계적인 추세인 친환경 설계적 측면에서도 역시 이토는 앞서나가고 있다. 국제현상설계에서 당선작인 ‘가비아 공원(Gavia Park, Madrid, Spain, 2003) 을보면공원의수공간이오염된물을 정화시켜주는기능을가지고있는새로운 개념의 공원을 선보이고있다. 이렇듯요 이토는 혁신적인 구조와 시대를 앞서 나가는 개념을 가진 작품으로 세계 건축



계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리더 중의 한 사람이라할만하다. 

유현준
홍익대건축학부교수